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2장 가욕(詞欲) ②

오욕은 자기 마음의 보배를 겁탈

고통부르는 악업 일으켜, 외부서 찾아온 도적처럼 여겨야

四詞味欲者 所謂若酸甘辛鹹淡等 種種飲食 希膳美味 能令凡夫心 生染著 起不善業 如一沙彌染著酪味 命終之後 生在酪中 受其蟲身 如是等種種因緣 知味過罪

4. 여기에서는 오욕 가운데 네 번째로 맛에 대한 욕구(味欲)를 꾸짖었다. 수행하는 사람은 색성향미촉인 오욕을 마주하게 되면 외부에서 찾아온 도적처럼 여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보배를 겁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히 멀리하여 탐착하지 않아야 한다.

맛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즉 쓰고 시고 달고 맵고 짠맛과 그 바탕이 되는 싱거운 맛을 말한다.

음식의 갖가지 좋은 맛은 범부의 마음에 애착을 일으켜 악업을 짓게 한다. 세상사람들 가운데 누군들 음식을 탐애하여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살생을 하지 않겠는가.

가령 바다와 육지와 허공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생하여 자기의 입맛에 따라 먹기도 하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여 맛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맛에 대한 욕구의 해로움은 이와 같이 크다. 하늘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데 하늘의 이치를 손상하고, 불법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는데 대자비심을 끊는 길이 살생보다 큰 것은 없다.

옛날에 어떤 사미는 버터의 맛에 집착하다니 죽은 뒤에 버터속의 벌레가 되었다 한다. 수행자는 반드시 그 죄과를 알아서 욕구를 버려야만 한다.

五詞觸欲者 男女身分柔軟細滑 寒時體溫 熱時體涼 及諸好觸 愚人無智 爲之沈沒 起障道業 如一角仙因觸故 遂失神通 爲淫女驕驕 如是等種種因緣 知觸過罪

5. 다섯 번째는 감촉에 대한 욕구를 꾸짖어 야 한다. 다섯 욕구 가운데서 감촉(觸)의 욕구가 가장 사납고 해로워 생사의 근본이 된다.

경전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체중생은 모두가 색으로서 그의 올바른 성명으로 삼는다. [一切衆生 皆以色欲 而正其性命]”

앞에서 열거한 색성향미 등 네 가지 욕구는 각각 한계가 있다. 색욕은 안계의 일부분에, 성욕은 이계의 일부분에, 향욕은 비계의 일부분에, 미욕은 설계의 일부분에 소속된다.

이러한 사근이 사진을 마주하면 각자마다 수용하는 한계가 다르다. 그러나 감촉에 대한 욕구만은 우리의 신체에 두루 퍼져있다.

감촉의 욕구는 남녀의 신체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데, 신체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서로 인마를 해주거나 갖가지 다른 오묘한 감촉을 일으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곳에 침몰하여 수행자의 도업을 장애한다. 앞에서 나왔던 일각사신은 감촉의 욕구 때문에 신통을 잃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말라고 악한 발원을 했다. 그 뒤 울란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 신통을 잃어버린 후 그 여인은 말처럼 부리면서 선인의 목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감촉에 대한 욕구의 과오와 죄업이 지극히 크고 위태롭다는 점이다. 이를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如上詞欲之法 出摩訶衍論中說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행자는 항상 조용한 물가나 숲속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였으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수행자는 어느 날 밤, 한 마리 검은 거북이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밤은 깊고 인적은 고요해 달빛이 우주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 때 한 마리의 여자가 나타나 거북이의 머리를 씹으려 하자 머리가 바로 수축되었고, 다리를 씹으려 하자 다리를 감추어 버렸다. 여우는 거북이를 잡아먹으려다가 피로만 느꼈고, 거북에게는

털끝만큼도 손상을 주지 못했다. 그러자 여우는 거북이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수행인은 이로부터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우는 외부 오진경계에, 거북은 수행인에, 머리와 사지는 우리의 내육근(內六根)에 비유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중생들은 무량겁 이래로 내육근이 항상 외욕진을 집착하면서 그 마음을 한 처소로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능생능멸토록 원한의 생사윤회를 만나면서 여우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만일 여우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 거북이의 법을 배운다면 생사는 스스로 끊어 나게 될 것이다.

復云 哀哉衆生 常爲五欲所惱 而猶求之不已

슬프다. 일체 육도중생이여, 항상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거기에 미혹하여 살피도 꿰달지 못하고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한다. 중생들은 비단 오진경계를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싫증내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상에서는 오욕마군의 힘이 지극히 심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此五欲者 得之轉劇 如火益薪 其招轉纏 五欲無樂 如狗嗜骨 五欲增諍 如鳥競肉 五欲燒人 如逆風執炬 五欲害人 如踐毒蛇 五欲無實 如夢所得 五欲不久 假借須臾 如擊石火 智者思之 亦如怨賊 世人愚惑 貪著五欲 至死不捨 後受無量苦惱

다음으로는 다섯 욕구가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이 오욕경계를 만나면 그 해로움이 더더욱 심해져 이는 마치 타는 불에 실을 더하면 그 불꽃이 더욱 치솟는 것과 같다.

오욕은 즐거움이라고는 없다. 그것은 마

치 개가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은데, 살아 있는 개가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수행인은 이로부터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우는 외부 오진경계에, 거북은 수행인에, 머리와 사지는 우리의 내육근(內六根)에 비유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중생들은 무량겁 이래로 내육근이 항상 외욕진을 집착하면서 그 마음을 한 처소로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능생능멸토록 원한의 생사윤회를 만나면서 여우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만일 여우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 거북이의 법을 배운다면 생사는 스스로 끊어 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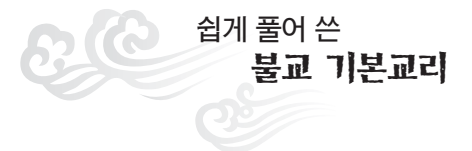
오욕은 또 비유하면 전광석화와 같아서 는 감착하는 사이에 소멸한다. 이를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원수와 같이 여기는데, 세상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르고 허망하게 집착심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버리지 못 해 한량없는 고뇌를 세세생애에 단절없이 받는다.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색욕은 뜨거운 쇠 덩어리와 같아서 그것을 잡는 순간 몸이 타고, 소리는 독을 바른 북과 같아서 듣는 순간 반드시 죽게 되며, 냄새는 독물의 기운과 같아서 맡는 즉시 병이 들며, 맛은 꿀은 꿀맛과 같아서 맛보는 순간 살이 문드러지며, 감촉은 누워있는 사자와 같아서 가까이 하는 순간 들린다.

오욕의 해로움이 진실로 이와 같다. 수행 자라면 그 오욕의 허물이 과연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보라.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악견(惡見) ④

4) 견취견(見取見)

‘견취견’은 앞에서 말했던 살가야견·번집견·사견 등 세 가지 그릇된 견해(惡見)를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모든 유정, 특히 외도들은 그들의 견해만이 그 어떤 종교나 사상적 견해보다 훌륭하다 여기고, 이를 가장 청정한 것이라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집착하는 견해만이 진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고 쓸모없는 견해라고 차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일으킨 악견에 대해 강한 집착심을 일으키게 되며, 이를 따라 모든 사상적인 논쟁을 불사하면서 자기의 견해에 굳은 신념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악견에만 집착심을 굳게 일으킨다는 의미로 이를 ‘견취견’이라고 합니다.

견취견등 다섯 악견 지적번뇌 속해 비른 정견얼으면 쉽게 끊을수 있어

5) 계금취견(戒禁取見)

계금취견은 잘못된 제도나 계율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집착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모든 유정을 가운데 특히 이단에 속하는 사설(邪說)을 철저히 신봉하는 외도들은 그들의 악견을 굳게 확립한 후 자신들의 견해만을 모든 사상의 극치로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상을 실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사상방식에 따른 금지된 규율을 수습하고 이를 법도로 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굳게 엮어매고, 이것을 자신들의 수행방편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이를 ‘계금취견’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악견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악견을 오리사(五利使)라고도 부릅니다. 오리사는 주관적 지적번뇌이기 때문에 바른 정견을 얻으면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거한 근본번뇌를 본혹(本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근본번뇌가 모든 지발번뇌, 즉 수번뇌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근본번뇌가 일어나 활동하는 데는 심전(深淺)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대략 구분하면 구생혹(俱生惑)과 분별혹(分別惑)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정리=張如舟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8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임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화	오후 4~7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	마일운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범고춤	수	오후 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육 등	목	오후 1~7	마일운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 1~4	활안(한정섭)	재학생
불교의식(연구)	짓소리 전문반	수	오후 1~3	김구해	졸업생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4	김법현	재학생

모집학과 및 정원(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범패실습 I	영산과정	금	오후 1~7	마일운	30
영산재의 불교예술특성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4	김법현	30
영산재의 원리와 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 1~4	활안(한정섭)	30
영산재의 레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 수	오후 4~7	조인각	30

모집학과 및 정원(편입학)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이기봉	약간 명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수료과정 : 승려 및 일반인,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과,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 출 서 류

▶ 수료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원서대 및 전형료 :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 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면접 후 입학.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전 명 일 정

2008년 1월 2일 ~ 2008년 2월 15일 까지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종단인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 득도 수계산법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를 흡수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중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된 전수생 지정
5.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인 시 우선 선발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http://www.okchunbud.kr/